

환경교육 교재의 적합성 분석

양재식 · 남상준

이리팔봉초교 · 한국교원대학교

1. 환경교육 교재 분석의 필요성

교재는 의미를 담은 텍스트이다. 즉 의미체이다. 이 의미체는 교재를 제작한 사람의 기호를 담고 있다. 이 기호를 담은 텍스트의 탈부호화자는 교사이다. 교사가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하는 행위가 교재 분석이다. 교재분석은 환경교육에서도 교재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다. 교사는 교과서를 포함한 영상자료, 웹사이트 등 다양한 교재 분석의 전문가이다. 아니면 교재 분석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바로 교사의 전문성 중의 하나가 교재분석이기 때문이다. 왜 교사를 교재분석의 전문가라 부르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교육)교사는 교재분석을 통하여 (환경교육)학습과정을 결정한다.

교재분석을 통하여 교사는 수업모형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수업전략을 수립한 다음 교수학적 변환을 통하여 적합한 수업방법과 수업기술을 택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교재를 해석하는 활동(decoding) 즉, 교재 분석은 환경교육의 실천의 장에서 훌륭한 환경교육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교재분석은 환경교육 실천의 장에서 다양한 교재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교재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교재가 환경교육에 적합한 자료인지를 판단하는 교사의 전문적인 활동이다. 환경교육 교재에는 제작자의 특정한 환경이념과 관심이 개입되기 마련이고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쇄자료, 비디오테이프, CD-ROM, 웹사이트 등 정보의 홍수라 할 만큼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느 것이 환경교육의 목적에 적합하고 질 높은 자료인지를 판단하여 선택하고, 선택한 교재를 평가하는 일은 환경교육 실천의 선행조건이다.

셋째, 교재 분석은 환경교육의 교재를 개발하거나 재구성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교재분석을 통하여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할 때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교재가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교재가 전체적으로는 양호하나 특정한 부분이 적합하지 않을 때 교사가 교재를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2. 환경교육교재 분석 틀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환경교육 교재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환경교육의 실행적인 또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교육 교재는 교사나 학습자에 의하여 사용되어질 것을 가

정하고 만들어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교육을 실행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1)의도적으로 2)학습자에게 3)환경에 관련된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4)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5)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섯 단계 모두는 구체적인 목표는 물론 내용(what)으로부터 방법(how) 혹은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위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양한 매체는 교재를, 메시지는 내용을 의미하며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은 매체(교재)의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의도는 교재의 내용이 담고 있는 가치의 문제와 연결되고 다양한 매체는 고유의 형식을 가진다. 따라서 교재는 '형식을 지향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내용을 만들어 내는 형식'이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실행을 지향하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재를 이해하고 환경교육 교재 분석 틀은 교재를 '실행을 지향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구성하였으며, 분석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환경관(environmentalism)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환경관은 자연을 보는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인간의 행동은 각자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환경관에 의존한다. 따라서 환경관은 환경교육 교재 분석의 기본적인 준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환경교육의 목적 및 내용과 방법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환경 문해력(environmental literacy)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환경문해력 결정 요인 및 요소는 환경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는 물론 내용으로부터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즉 환경 문해력은 환경교육의 목적 및 내용과 방법에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석 틀을 마련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세 번째 질문은 '환경교육 교과서는 ~해야한다', '환경교육 영상자료는 ~해야한다', '환경교육 웹사이트는 ~해야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환경교육 교재가 따르는 매체의 전체적인 조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인쇄매체로서의 교과서, 영상자료, 웹사이트 등은 각기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여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교과서, 영상자료, 웹사이트 고유의 분석기준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였다.

이러한 각기 다른 분석 기준에 환경관과 환경문해력 분석기준을 접합하여 목록화하는 것으로서 환경교육 교재의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위의 환경교육 교재 각각의 분석 틀 구성 방법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환경관> + <환경문

해력> + <교재의 매체특성 분석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을 설정하였다.

3. 분석의 예로써 영상자료 분석 및 논의 (EBS의 ‘환경전사 젠타 포스’)

많은 영상자료 중에서 EBS의 ‘환경전사 젠타포스’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어린이 대상의 환경 교육 드라마이고, 편성 시간에 비추어 공중파 상태로 학교현장에서 실시간 활용될 가능성이 많고 후에 편집하여 교과 및 재량활동 시간에 환경교육용 영상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환경전사 젠타포스’는 어린이 대상의 환경 교육 드라마로서 환경 보호에 대해 그간의 이분법적인 환경관이나 주입식 환경 교육이 아닌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환경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한다고 편성의도를 밝히고 있다.

본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영상교재 분석 틀의 분석 항목 중에서 분석하기에 부적절한 항목을 제외하였다. 배제 항목과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분석대상 자료가 드라마란 점에서 ‘다양한 생태학적 지식을 기르는 내용으로 짜여 있는가?’ 항목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본 분석이 하나의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타 매체와 비교하여 효율적인가?’ 항목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실제적인 환경수업을 위한 분석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환경학습 주제와 일치하고 편집상태나 화질은 양호한가?’, ‘학습 내용의 특성에 적합한 제시 전략이 사용되었는가?’와 ‘학습자가 이해할 만한 수준의 내용인가?’의 항목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 환경관

1) 건전한 환경관을 지니고 있는가?

분석 결과 본 영상자료는 건전하지 못한 환경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영상물이 따르고 있는 SF장르와 본 연구에서 건전한 환경관으로 설정하고 있는 생태지향적인 환경관과의 불일치이다. SF의 정식명칭은 science fiction films이며 이는 영화의 표현력이 사실적(寫實的)인 기록성과 특수촬영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상성(幻想性) 등 두 가지 요소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SF가 다루는 소재는 과학과 기술, 우주, 유전공학 등의 테크놀로지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테크놀로지에 대하여 SF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취한다. 하나는 과학기술이 궁극적으로 문명의 진보를 보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이 지닌 파괴적인 측면을 경고하는 입장이다. 전자를 유토피아적 비전이라 부른다면, 후자는 종말론, 세기말의 위기 의식을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다루는 데는 다분히 기술지향적이며 소재뿐만 아니라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자연적인 것

을 탈피하여 기술적이고, 이질적이며 가상적인 영상을 추구한다. 즉, 영화 테크놀로지의 개발, 특히 특수효과에 의한 스펙타클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바치고 그림으로써 테크놀로지 자체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전능성의 도구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지향적인 환경관에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SF장르 자체가 추구하는 소재나 이야기 전개방식, 표현기법 등이 건전한 환경관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전사 젠타포스’가 이러한 장르를 택함으로써 건전한 환경관을 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영상물이 따르고 있는 이야기 구조의 문제이다. ‘환경전사 젠타포스’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상생활을 코믹하게 그려내는 시추에이션 코믹극이며 어린이 변신물이라는 특수촬영과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시트콤이 함께 결합된 형태로서 지구의 환경과 우주 평화의 원천이 가족의 평화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아이들의 흥미에만 초점을 맞춰 건전한 환경관이나 환경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비켜가고 있다. 종래의 이분법적인 환경관을 탈피한다는 편성의도와는 달리 이야기 구조가 철저하게 이분법적이다. 환경문제는 사회구조와 맞물린 복잡한 문제이고 보통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또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유발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선과 악의 대비, 즉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악의 무리인 하데스 일당과 이와 맞서 싸우는 젠타 가족으로 구분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사이의 싸움으로 비유하여 제시하는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나. 환경문해력

1) 환경쟁점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루는 기능을 돕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는가?

분석 결과 본 드라마는 환경쟁점을 소재로 했을 뿐 그것을 이해하고 다루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영상자료의 내용이 환경문제의 원인보다는 현상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이의 해결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환경전사 젠타포스 형제의 변신을 통해 초능력을 이용한 폭력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즉 환경쟁점의 유발 원인 제시의 부재, 환경문제 해결방법의 부적절성,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징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 등은 환경쟁점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루는 기능을 돕는 데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데 원인이 있으며, 흥미 유발과 영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폭력성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분석대상 영상자료가 환경쟁점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 이유는 영상을 만든 사람이 환경교육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 자체를 의식하지 못할 수 있고, 영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환경수업에서 이 영상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시청소감을 적어보게 하여 영상자료의 내용과 제작자의 의도에 대한 비판을 적어보게 함으로써 비판적 시청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잘못 제시된 환경쟁점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길러주는 내용인가?

다음의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실린 시청자 소감문을 보면 프로그램의 폭력성을 제외하고는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어린이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길러주는 데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른이 보기엔 좀 어설픈 내용이고 아이들이 보기에는 폭력적인 내용도 조금 있지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은 "환경"이란 단어입니다. 우리의 지구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아가 휴지를 그냥 버릴 때 제가 "휴지를 그냥 버리면 넌 괴물이야"라고 하면서 "너 괴물이 될래? 환경전사 젠타포스가 될래?" 하면 젠타포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환경전사가 되는 거야"하면 우리아이는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잘 버립니다.

시청자 소감문 중에서 (2003. 10. 5)

그러나 호의적인 시청소감과는 달리 영상자료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 행동인지, 누가 환경전사이고 누가 환경을 어지럽히는 사람인지조차 구분이 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례로 '제 13화 주말농장에서 생긴 일(2003. 5. 20일 방영)'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향 별을 그리워하는 유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산에 올라가 꽃을 꺾어 선물하려다 하데스 일당 때문에 쓰러진다. 유리의 도움으로 깨어났을 때 젠타의 손에는 꺾은 꽃들이 들려있다. 꽃을 꺾으려는 젠타는 문제가 되지 않고 하디스에게 쓰러진 젠타만을 동정하고 있다.

·하데스 일당은 인간들이 버린 일회용품을 먹고 에너지를 충전한다. 일회용품을 얻기 위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관광객들을 하데스 일당이 공격한다. 젠타형제들이 이를 구해준다. 여기에서 일회용품을 버린 사람들의 행동은 문제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을 공격한 하데스 일당을 악의 무리로 표현하고 있다. 괴이한 의상과 분장, 그리고 행동을 통하여 하데스 일당을 악한으로 묘사하고 있고, 오히려 환경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는 쪽은 젠타 가족이나 야유객등의 인간들이며 이들이 보호받아야할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하데스 일당과 환경전사의 행동에서 누가 친환경적인지의 구분이 모호한 것 외에도 주말농장에 간 가족이 체험학습을 하는 일 없이 오로지 오두막에 앉아 음식을 먹고 즐기는 모습만 보이고, 주변의 모습도 놓고 마시는 관광객들로 표현되어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 단위로 채소 등을 가꾸는 도시 근교의 농업 체험을 하는 주말농장 프로그램이 이를 보는 어린이들에게 잘못 인식될 수 있는 등 올바른 환경가치관과 책임감을 길러주기에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혼란스럽게 제시된 내용을 보고 친환경적인 행동에 바람직하다고 해석한 시청자의 소감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그것은 “너 괴물이 될래? 환경전사가 될래?” 라고 환경과는 무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행동을 유인한 탓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단지 아이가 괴물보다는 멋진 환경전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선택한 행동이라 볼 수 있다. ‘괴물’이 되지 않고 ‘환경전사’가 되고 싶어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는 선택을 하였다고 해서 그 어린이가 이 드라마를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충동적인 선택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책임감 있는 환경행동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3) 환경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

본 영상자료는 7세 이하 아동이 시청하기에는 부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주 시청대상을 초등학생 이상으로 설정하고 제작된 자료라 할 수 있다. 주 시청대상이 초등학생이라고 볼 때 환경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분석되었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인 참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하데스 일당과 맞서 싸우는 형태의 참여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의 참여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환경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힘든 내용이고, 학습자의 생활 공간과는 유리되는 내용이어서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

다.

본 영상자료는 환경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환경교육 드라마가 아니라 환경문제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라고 분석되어진다. 따라서 이 영상자료를 시청한 후 그 안에 나타나 있는 행동양태를 환경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적어보는 활동을 통해 모니터링해 보고 그것을 제작사에 보냄으로써 학습자가 실제적인 환경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영상자료에 제시된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나 화면에 대해 환경친화적으로 대본을 다시 써보게 하는 등의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환경교육에서 중시하는 감수성 요인 중의 하나인 이타적인 사랑의 전형적인 예로서 '지구의 환경과 우주 평화의 원천이 가족의 평화에서 비롯된다는 작지만 소중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며 환경은 물론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제작의도를 살렸다면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기에 적합한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영상자료는 이러한 제작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충격적인 환경오염 문제만을 소재로 다루고 있고, 폭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변신을 통해 자연과의 관계성을 피해감으로써 감수성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재로 분석된다.

다. 영상교재 매체 특성 분석

1) 영상자료를 제작한 개인 및 단체는 신뢰할 만한가?

분석결과 제작사는 신뢰할 만하나 제작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자료를 제작한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교육 전문 방송국으로서 환경교육 영상자료의 중요한 자료의 원천이다. 이미 언급한 중영된 프로그램인 '출동! 초록수비대'는 각 학교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교재의 역할을 하였고 자연 다큐멘터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분석대상인 '환경전사 젠타포스' 외에도 환경오염의 실상을 밀착 취재하여,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환경 다큐멘터리 '하나뿐인 지구'를 제작 방영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 다큐멘터리'나 '하나뿐인 지구'등의 제작에는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지만, 어린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전문가의 참여 없이 방송제작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 드라마 전문감독은 있으나 환경교육 전문 감독은 없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제작된 영상자료는 환경 및 환경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영상자료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교육전문 방송 EBS에는 일정한 교과나 학습주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감독이 필요하다하겠다.

2) 상업적인 목적이거나 특정 이데올로기의 전파를 위한 편파적인 주장은 없는가?

본 영상자료는 영상자료 내용 면에서 상업적이거나 특정이데올로기 전파를 위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2002년 8월부터 방송국 차원에서 인터넷 VOD (Video On Demand) 서비스를 유료화한 이후 이에 대한 공영방송의 상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교육방송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투자로 교육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특정인의 배움터로 전락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미를 잃어 가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환경전사 젠타포스’도 이러한 논란에서 예외는 아니며, 환경전사의 모습을 살펴봐도 오늘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캐릭터 산업’과 연관을 지으려는 상업성이 엿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영상자료는 아동의 흥미에만 초점을 둔 환경소재 드라마일 뿐 환경교육용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한 시청지도가 있어야하고 환경수업에서 활용할 때에는 이 자료를 비판적으로 시청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분석과 논의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교육 교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환경교육적 시각을 가지는 일이다.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환경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에 대한 이해가 분석의 방향을 결정하고 환경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환경교육 교사는 교재를 다양한 분석 틀로 바라보고 그 분석 틀 안에서 교재를 설명하고 결과를 판단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환경교육 교사가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여 적절한 시점에 활용하지 못하고 교사는 단지 주어진 교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수용자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셋째, 환경교육 교사들이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교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재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만을 강조하고 교육적인 측면을 무시한 대부분의 교재들은 제작자들이 환경교육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교육교재를 개발할 때에는 환경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교사들이 교재개발에 참여하는 예가 드문 점을 감안 할 때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